

정동영 국민의당 대표 경선 후보 인터뷰

“강력한 변화로 지방선거 이기고 호남정신 토대 당 결집 이끌겠다”

16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정동영 후보는 자신감이 넘쳤다. 강력한 변화를 주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시대적 과제인 개혁 경쟁을 주도하며 민주당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대표에 당선된다면 곧바로 선거제도 개편 및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당 주도로 새로운 시대의 길을 만들어 나갔다는 의지도 나타났다. 이날 한 시간 동안 이어진 인터뷰에서 정 후보는 결국 시대적 가치와 맥을 같이 하는 호남 정신을 토대로 당의 결집을 이끌어 호남 민심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정동영이어야 하는가.
 ▲국민의당은 달라져야 한다. 정동영은 당의 변화를 가져올 적임자다.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은 소멸한다. 정동영은 결집을 이끌 수 있다. 안철수, 천정배, 이언주 후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물론 40명의 현역 의원들과 220명의 원외의원, 전국 400여명의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상징적 변화는.
 ▲소수 측근이 당을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 1인 사당화 체제를 바꿔야 한다. 당이 작든대도 불통정당이다. 국민의당이 사는 길은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는 것이다. 결집해야 한다. 소통으로 결집을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동영이 당선되면 국민의당은 사당이 아닌 공당임이 증명되면서 살아 숨 쉬는 정당이 된다.



바꿀 수 있는 모든 것 바꿔야 당 살아 개혁 경쟁으로 민주당 한계 넘을 것 개헌·선거구제 개편 당이 주도해야 청년·여성공천 확대 젊은당 만들것 타당과 통합론 호남민심 배신 행위

▲당연하다.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주도하겠다. 민생 관련 주요 이슈도 마찬가지다. 훗날의 명령은 권력을 국민과 국회, 지방에 분산하라는 것이다. 여권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실질적으로 8년 단임이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선거구제 개편도 표심의 정확한 반영은 물론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독일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혁신공천 구성은.
 ▲당연하다.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주도하겠다. 민생 관련 주요 이슈도 마찬가지다. 훗날의 명령은 권력을 국민과 국회, 지방에 분산하라는 것이다. 여권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실질적으로 8년 단임이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선거구제 개편도 표심의 정확한 반영은 물론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독일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감한 인재 영입을 통해 청년 및 여성 공천을 확대 나가겠다. 국민의당을 젊은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20·30대의 지지를 강력하게 견인해야 한다.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1차 공천을 마칠 것이다. 경쟁력 있고 당을 지켜주는 분들이 미리 확신을 갖고 뛸 수 있도록 먼저 정리하겠다. 서울지역 단체장의 경우, 절반을 청년과 여성으로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정당 등과의 통합 및 연대론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당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자강으로 길을 개척해 가야 한다. 다당제는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다. 통합론은 호남 민심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하책 중 하책이다.

-호남 대표로는 '호남 프레임'에 갇힌다는 지적도 있다.
 ▲호남은 지역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다. 호남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다. '탈 호남'론은 말 그대로 호남을 지역에 가두고 한계를 지으려는 악의적 프레임이다.

-정동영 정치의 목표는.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게 목표다. 청년의 꿈과, 경제 발전, 남북 평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목표에서 기차타고 평양을 거쳐 대륙으로 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라.

-안 후보가 국민의당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지지 여부를 놓고 '안철수 딜레마'가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당 대다수 의원들이 안 후보의 출마를 만류했지만 안 후보는 이를 외면했다. 오죽하면 '외계인'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당의 단합이 쉽지 않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갈등과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당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안 후보가 이번 당 대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치적 기회는 많다. 선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있고 아니면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의당 후보 지지에 나설 수 있다.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호남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헌신과 대동 세상으로 정의되는 호남의 가치는 상식이고 정치의 근본이다. 하지만, 이를 선명하게 대표하는 정치 그룹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두려움 없이 투쟁하고 실천해 나가야 호남 정치권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웃픈'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다. 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여야 교섭단체 정당 대표가 모두 영남 출신이 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과의 회담은 '영남 향우회'가 된다는 것이다. 지역을 떠나 호남의 현실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tuim@kwangju.co.kr
 /정리=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산구 전국 최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기간제 54명 공무직 전환

기간제 54명 공무직 전환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했다.

민 구청장은 회견에서 "비정규직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8시간 근무 확립으로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제도 사각지대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방안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4일 '공무직 전환 심의 위원회'를 열어 구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산구는 구립도서관 자료정리원, 직영 복지관 조리원 등 기간제 노동자 54명을 공무원직으로 전환해 정년을 보장했다. 임금 체계도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호봉제를 적용한다.

"비정규직 제로"를 유지할 시스템도 구축했다. 6개월 이내 업무, 대체 인력 등 5가지 경우 외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전에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집중 심의하는 '근로자 고용 사전 심사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산구는 지난 2011년 1월 공공부문 전국 최초로 정규직 정책을 실시한 이래 모두 174명을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각기 다른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정소용역업체 노동자 131명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의 질을 높였다.

민 구청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들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법으로 '사회서비스 전담기구' 설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도 밖에서 보육, 요양 등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토대를 닦기 위한 전담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광산구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광주의 선언, 나아가 대한민국 비정규직 제로 선언으로 번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민 구청장의 선언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심철의 광주시의원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장 경선 출마

광주시의회 심철의(서구1·국) 의원은 16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 당연직 최고위원인 전국청년위원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지난 총선은 기득권 거대 양당 체제를 종식하고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세우 다당제를 이루어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면서 "이후 대선 패배와 당에 미흡한 점을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 번 새롭게 부활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정당 이후 총



선과 대선으로 잠시 미뤄두었던 우리당의 스마트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원의 전열을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대표 경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는 현재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모두 4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읍지연습 주민 참여형 훈련으로 치른다

다음 주 21~24일 시행하는 2017년 읍지연습이 주민 참여형 훈련으로 치러진다.

전남도는 16일 김갑섭 전남지사권한대행, 권삼 제31보병사단장, 강성복 전남경찰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읍지연습 준비 보고회 및 제3차 전남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2017년 읍지연습 준비 상황 점

검, 북한의 하반기 대남 위협 전망 보고, 통합방위 사태 선포 등 국지도발 위기관리 대응 절차연습을 했다. 북한의 반잠수정 침투를 가상해 군·경의 작전통제 전환 등 통합방위 수행절차에 따라 전남 전역에 통합방위 '병중사태'를 선포, 국지도발 위기관리 대응절차를 연습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